

지역 소식통

정현을 시장, 지역 화합 위해 4대 중단 지도자와 만남

정현을 익산시장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들과 4대 종단 화합과 소통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익신 목사(익산기독교연합회장), 일행스님(익산시암연합회장), 안인식 교구장님(원불교중앙교구장), 정성만 신부(익산남부지구장)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화합과 상생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익산시 발전방향 등 시정 전반에 대한 토론과 의견이 교환됐다. 시는 종교계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 계획이다.

4대 종교는 종교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동축제 기간 중 4대 종단이 참여하는 서동축화 화합합창제에 참여해 종교문화를 널리 알리고 종교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시발생 특별방역대책 추진

익산시는 지속적인 고병원성 A형발생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방역지도와 위험도 평가 등을 위해 특별방역반을 운영하고, 3~10km 이내 농가 주변 및 철새도래지 등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AI 방역실무대책본부를 운영해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해 매일 전화여찰과 폐사축 검사 등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특별방역반은 익산시 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민간전문가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과, 익산군산축협, 하립공방단, 검역본부의 소독차량 6대를 이용하여 농가주변 및 철새도래지 등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쌀 시비직불금 84억원 지급

익산시는 2016년산 쌀에 대한 시비직불금 84억원을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지급한다.

시비직불금 지급대상은 1만8,757ha에 1만727명으로 농가당 지급규모는 5ha까지 지급하며 벼를 심은 농가에게 1ha당 61만원, 최고 305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쌀 과잉생산 및 쌀값하락으로 시름하는 쌀 농가가 벼 재배농지에 서논에 타작물재배 농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타 작물면적 3ha까지 포함해 총 5ha까지 시비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비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호국영웅의 공헌 잊지 않겠다”

전북서부보훈지청,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안보 결의문 채택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제2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익산과 군산에서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익산시 국민생활관 강당에서 익산시 안보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익산 기념식은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하여 한원수 익산시안보단체회장, 정현을 익산시장, 관내 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15시 군산시 여성교육장에서 열린 군산행사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장병인故 문광욱 일병 유가족이 참석했다.



결의하였다.

또한 익산국민생활관 소극장 주변과 군산시 여성교육장에 서해 수호 관련 사진 10여점을 전시하는 등 안보사진전을 개최하여 기념식을 찾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제2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일어난 북한 도

발 사건들의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결집하여 북한의 도발을 꺾고자 하는 의미 있는 날이며,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의 영해를 지키기 위해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용사들의 위대한 애국정신을 높이 받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악취저감 종합계획 설명회 개최

악취배출사업장 대표자 200여명 대상 지켜야할 5가지 유의사항 당부

익산시가 예코융합설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악취배출사업장 대표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7 악취저감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 선을 위한 예산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환경기술인 뿐 아니라 예산 편성의 실질적 책임자인 회사 대표자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이날 악취저감을 위해 ▲ 2018년 1월 이후에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법적기준이 현행 750배에서 500

배로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시설 개선 등 악취 저감 대책 강구 ▲ 악취방지시설의 세정수 및 활성탄 교체 보고 ▲ 악취취약시기인 하절기 및 심야시간 대 작업시간 조정, ▲ 악취 시설 개선 시 변경신고가 수반될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 수리 완료, ▲ 악취취약시기 등 환경기술인 연락 시 신속한 악취 저감 조치 대응 등 각 회사들이 지켜야할 5가지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를 초빙해 악취방지법의 이해 및

악취저감기술을 주제로 강연도 마련됐다

올해 1억여 원 예산을 세워 악취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수요에 맞춰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악취 시설 개선에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악취모니터요원을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6월부터는 익산시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2년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익산시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도내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기관표창에 받게 되어서, 2017년 6,6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27개 중앙부처가 주관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 9개 분야 27개 시책 196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익산시는 총 9개 분야 중 일반행정, 사회복지, 환경신림, 안전관리 등 4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익산시는 자체평가 시스템인 BSC성과관리와 합동평가 업무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물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이뤘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상고 출신 LG트윈스 차우찬 모교 야구부 4천만원 야구용품 기증

LG트윈스 투수 차우찬 선수가 모교인 군산상고 야구부에 4천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후원했다.

차우찬 선수는 후배들을 위해 지난 20일 4천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군산상고 야구부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2천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군산상고에 따르면 차 선수의 모교 사랑은 2006년 프로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 입단 당시 계약금의 일부분을 군산상고 야구부 실내 훈련장

인조잔디 공사 비용으로 쾌척했고 야구부 식당에 대형 냉장고를 기증하는 등 꾸준히 모교 사랑을 실천해 왔으며 군산상고 야구부 출신 가운데 최초로 군산상고 고액기금 기탁등문 명단에 등재되기도 했다.

차 선수는 “답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모교에 받은 게 많은데 아직 그 은혜를 갚으려면 멀었다. 향후에도 군산상고 야구부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기부 활동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기자

원광대, 한국어교육원 봄학기 입학식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한국어교육원 2017학년도 봄학기 입학식을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김도중 총장과 정수진 국제교류처장, 한국어교육원 강사를 비롯해 베트남,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 지역에서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학한 신입생 530여 명과 외국인 재학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범죄예방교육 등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입학식과 함께 사물놀이

등 우리나라 전통공연이 식전행사로 진행됐으며, 2부는 익산경찰서에서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박성란 한국어교육원 교수는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이 원광에 거주함에 따라 이번 입학식에는 원광 주인들도 초청해 상생을 통한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인척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며, “입학식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새만금 공유수면에 美 전투기 연료탱크 떨어져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의 비행훈련 도중 보조연료 탱크가 분리돼 새만금호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군과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께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의 보조연료 탱크 2개가 새만금 공유수면으로 떨어졌다. 당시 전투기 조종사는 훈련 도중 기체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 연료탱크를 분리했다.

이번에 낙하한 연료 탱크에는 개당

1370l의 연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8 전투비행단은 보조연료 탱크가 새만금 공유수면에 낙하하자 전투기 선회 비행 등을 통해 수색에 나섰다. 24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와 새만금사업단 등은 연료탱크의 기름 유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공군과 협조해 연료탱크가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군산=김판관기자

어린이 행복특권 도시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